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19년 (불기 2562년) 8월 30일 (금)

<http://dongguk.or.kr>

제249호

달리자! 새로운 100년 비전 향해

9월20일 만해마을에서 비전 선포식 개최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 모토 삼아



▲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워크숍 계획안이 28대 2차 상임위원회에 보고 되었다.

총동창회(회장=박대신)는 동창회 설립 101주년을 맞아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 비전을 선포한다. 선포식은 오는 9월20일 강원도 이제 만해마을에서 개최되는 본부 임원

및 각급단위동창회 간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 워크숍’에서 진행된다.

총동창회는 지난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모교에 대

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자랑스러운 총동창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혁신 비전안’을 마련했다.

비전은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을 모토로 하여 단기적 목표로 △역사창조위원회 운영 △동문조직 활성화 역량 강화 △안정적 재정 확충 기반 구축 △성장동력 촉진체계 혁신 △모교와 파트너십 유지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등에 대한 동문과의 약속을 담았다.

종장기 과제로는 △동국 Honors club 운영 △명예의 전당 설치 △동창회관 건립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촉진하며 동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창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총동창회는 지난 4월 박대신 회장 취임 이후 그동안 모든 동문이 공감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혁신적인 비전체계 마련을 위해 ‘총동창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2차례의 상임위원회와 각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내용들을 검토해 왔다.

이번 비전 마련의 출발은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수많은 위기와 좌절을 함께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문 요람으로서의 긍지 회복 △최근 일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신뢰의 기반이 무너져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되는 위기관리에 대한 현명한 대비 필요성 △향후 변함없는 동국사랑을 위해 덕망 있는 선배 동문을 모시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후배들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활기찬 동문회 문화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

비전 체계는 △비전 제시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슬로건 통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동문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동문들이 행복한 동창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 선포를 비롯 자유토론, 백담사 문화탐방, 만찬 및 단합의 시간 등을 갖게 된다.

‘찾아가는 동창회’ … 모교 총장과 함께 전국 순회

직할경주동창회

“동창회 · 모교발전에 한 몸 되자”

직할경주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격려차 방문

부산 · 대구 · 대전 · 경남 등 방문 하반기에 호남지역으로 이어진다



조덕형 회장

총동창회는 6월부터 지역동창회 순회에 나섰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조직활성화 공약인 전국 지역동창회 순회의 첫 방문지로 6월20일 직할경주동창회를 찾아 조덕형 회장을 비롯한 현지 동문들과 만나 조직운영 현황과 비전 등을 공유했다. 이번 직할경주동창회 방문에는 허창식(영문75) 상임부회장, 김오

현(체교76) 상임부회장, 이상호 사무처부장이 동행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날 신라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제5회 동국대직할경주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에 참가한뒤 직할경주동창회장단과 함께 1박하면서 현지 동창회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상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밤샘 토론을 가졌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경주 직할동창회장단에게 “경주캠퍼스가 있는 직할경주동창회는 여러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많은 동문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동국의 이름아래 우리는 한 가족이나 다



▲ 직할경주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6월20일 신라C.C에서 40여개팀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 최규철 원로 선배 등이 참가했다.

름없는 만큼 모교를 내 가문처럼, 동창회를 내 가정처럼 소중히 아끼는 동국사랑의 기치를 드높혀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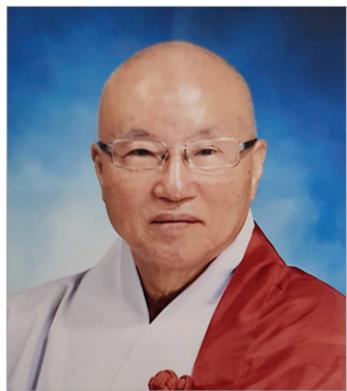
조덕형 직할경주동창회장은 “영남권 동창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회장배 골

프대회 개최도 그 일환이었다”면서 “본부 동창회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늘 깊은 애정과 격려로 지역동창회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10 · 11면〉

법산스님, 모교법인 이사장 취임

“동국 발전이 국가발전이며 생명공동체 평화”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제40대 이사장에 법산스님(인철69)이 취임했다. ‘제39대 이사장 자광스님 이임 및 제40대 이사장 법산스님 취임식’이 7월18일 모교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윤성이 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해 자광스님의 이임과 법산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이사장 법산스님은 취임사에서 “학교법인동국대학교는 자비·지혜·정진을 건학이념으로 113년의 역사속에 60만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각계각층에

서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동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나아가 우주법계 생명공동체의 평화라는 인식으로 동국 발전의 대열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치사에서 “동국 발전의 도약대를 높이 세우고 화합과 발전의 길로 이끌어준 자광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산 스님의 원력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축원한다”면서 조계종립 동국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자광스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새 이사장 법산스님과 함께 동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믿으며, 저 또한 조석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인사했다.

신임 이사장 법산스님은 1986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로 재직해 왔다.

학교와 동창회간 협력관계 재확인

모교 총장·부총장단 본회 방문



▲ 신임 인사차 윤성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유국현 연구부총장 등이 본회를 방문했다.

모교 윤성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한희원 교무부총장, 유국현 연구부총장이 5월30일 정오 본회 사무실을 방문해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상임부회장, 감사 등과 회동하고 “동국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교 윤성이 총장의 총동창회 방문은 지난 2월28일 취임후 첫 방문이다. 특히 부총장단까지 동창회를 방문한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다.

박대신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학사업무에 바쁘신데도 동창회를 직접 방문해 주신 총장님과 부총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동국발전이라는 목표는 학교와 동창회가 다를 수 없다. 동창회는 언제나 모교의 영원한 응원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반겼다.

윤성이 총장은 방문 인사에서 “학교와

동창회는 불가분한 공동체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모교 발전을 위해 후원도 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임기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확하고 납득하고 칭찬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터이니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교 임원들과 동창회 임원들은 짧은 간담회에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한 만큼 대학과 법인, 동창회가 상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상호 존중과 격려, 배려의 틀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총장 일행의 동창회 방문 환영단으로는 상임부회장 법타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이경석 상임부회장, 김상일 상임부회장, 윤병관 감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충환·임덕규·권오춘 동문 고문 추대 본회 발전 기여·사회활동 고려



박충환 고문



임덕규 고문



권오춘 고문

본회는 8월19일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동창회 발전에 자문역할을하게 될 고문단으로 박충환(경제55) 임덕규(법학56) 권오춘(영문59) 동문을 추가로 모셨다. 이번 고문단에 세 분을 추가 추대함으로써 전체 고문단은 54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다.

박충환 고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과 모교 재단 감사로 활동하고 현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있다.

임덕규 고문은 11대 국회의원과 한·인도친선협회장, 세계외교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영문 외교잡지 디플로머시 회장으로 있다.

권오춘 고문은 정신문화 창달과 예술문화 창신에 앞장서온 독지가이며, 모교에 발전기금 28억원, 도자기 등 미술품 300점(82억원 상당)을 기부했다. 현재 초허당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총동창회장, 모교 신임 이사장 예방



▲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신관호 회장특보, 임선기 사무총장이 8월8일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예방해 법산 이사장 스님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법산 이사장 스님은 “법인과 동창회가 서로 협력하여 동국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초대 회장 만해스님 흉상 제작



▲ 성복동 심우장 입구에 세워진 만해스님 흉상.

본회는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스님 흉상을 제작해 동창회관에 안치키로 하고 제작에 착수했다.

이번 흉상 제작은 만해스님이 독립운동가로서 국가적 인물이라는 점과, 1회 졸업생으로 본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만해 선양사업 일환으로 수 년전부터 꾸준히 제작돼 왔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창회 설립 101년에 즈음하여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흉상 제작은 28대 1차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김오현 상임부회장 제작비 쾌척



총제작비 6백만원은 김오현(체교76, 사진) 상임부회장이 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30일 제작업체인 (주)유미인에 계약비를 보내 제작을 의뢰했으며, 소요기간은 3개월정도 걸린다.

현재 동창회에는 동창회관 건립기금을 5억원씩 기부한 故 문태식(사학49, 전 아주산업 회장), 전순표(농학53, 세스코 회장) 동문의 흉상이 안치돼 있다.

한편 본회는 앞으로도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들을 선정해 흉상을 제작해 귀감으로 삼기로 했다.

서울·경주캠 가을학기 졸업식

학사·석사·박사 학위 2천148명



▲ 2019년 가을학기 수여식이 서울과 경주에서 캠퍼스별로 거행됐다.

총동창회장 공로상 한서희 동문

서울 및 경주캠퍼스 2019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에서 총 2천148명의 학사, 석사, 박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총동창회 신입회원으로 자동 입회된다. 서울캠퍼스 2019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이 8월22 일(목) 오전11시 본관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85 명, 각 대학원 석사 504명, 박사 90명을 배출했다. 이근장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이사는 불교진흥발전에 기여하여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성적 우수상 △백승현(경찰행정학) △ 강서린(경영학) △임형석(건설환경공학)
- 이사장 공로상 △이경순(불교대학원)
- 총장 공로상 △임세현(사회학) △배병준(경찰행정학부) △김정도(경영학) △ 김범석(회계학) △정지혜(신문방송학)
- 총동창회장 공로상 △한서희(신문방송학)

경주, 총장공로상 문선배 동문 등

8월23일 오전 11시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56명, 석사 102명, 박사 11 명, 최고위(CEO) 및 연구과정 수료자 16 명의 졸업생이 나왔다.

- 총장 공로상 △김도엽(불교문화대학원) △문선배(경영대학원) △이호준(사회과학대학원)
- 경주캠퍼스총장 공로상 △윤갑숙(불교문화대학원) △김보선(경영대학원) △ 이창훈(사회과학대학원)



▲ 문선배(왼쪽) 졸업생 등이 총장공로상을 받다.

회관 이전·개방이사 추천 논의

제2차 상임위원회 “회장에게 전권 위임”

본회 28대 제2차 상임위원회가 8월13 일 오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 34명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제1호 안건으로 ‘총동창회 총무로영상센터 이전관련 후속 조치의 건’을 상정해 △동창회관의 총 무로영상센터 이전 재추진 △모교에 보 관중인 동창회관 건립기금 반환 등을 표

함한 제반 문제의 전권을 총동창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제2호 안건 ‘학교법인 개방이사 동창회 대표 추천의 건’은 오는 9월 임기만료 되는 개방이사 2명(김선근, 김기유)의 후임이사 후보로 동창회 대표를 추천하자는데 동의하고 추천권을 총동창회장에게 위임했다.

본회 최초 홍보영상 제작

본회 최초로 ‘총동창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이라는 홍보동영상이 제작됐다. 이번 홍보영상은 동창회 설립 101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모교 영화영상학부 협조를 얻어 8월말 마무리 되었다.

홍보영상 내용은 10년 주기의로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교 주요 뉴스와 동창회 활동들을 담아냈다.

이번 홍보영상은 오는 9월20·2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100년 비전 워크숍’에서 첫 공개된다.

이후 동국인의 밤이나 정기총회같은 각종 행사때마다 상영해 동문들의 자부심을 키우는데 활용하게 된다.

동창회관 충무로 이전 ‘불발’

인사동 백상빌딩 사무실 그대로 머물며 업무수행

지난 6월3일 모교 총무로영상센터로 이전하려던 총동창회 사무실이 모교측의 사정에 의해 일단 유보돼 인사동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본회는 6월1일(토) 총무로 영상센터(10층)로 이사를 한 뒤 6월3 일(월)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기로 5월25일자 동창회보에 이전 계획과 주소 까지 발표한 상태에서 모교측의 갑작스런 ‘입주 불가’ 통보로 혼선이 빚어졌다. 6월3일 이후 동문들로부터 “총무로영상센터로 이사 잘마쳤느냐. 한번 들리겠다”

는 출하전화가 이어졌다. 그 때마다 사무처는 “사정에 의해 이사를 못갔다”고 답변하느라 진땀을 뺏다.

동창회관의 총무로영상센터로의 이전 계획은 모교측과 동창회간에 일정부분 합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실무자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세부 내용까지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이와 관련, 본회는 차후 학교법인 및 대학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동창회관 문제의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9학번 홈커밍데이 개최

10월19일(토) 오후4시 모교에서 만납시다



▲ 89학번 홈커밍데이 본행사를 앞두고 대표자들이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30여개 학과 150여명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89학번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10월19일(토) 오후 4시 모교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는 2009년 79학번을 시작으로 2018년 88학번까지 10회째 잇고 있다.

본 행사를 앞두고 89학번들은 행사준비위원회를 꾸리고 4월부터 매월 3번째 목요일 오후 7시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구체적 행사 활동들을 챙기고 있다.

4~8월 준비모임에는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통계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농업생물학과, 농업경제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교육학과, 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등 총 30여개 학과 1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30년 만에 조우하는 동기들과 보낸 준비모임은 어느덧 타임머신을 타고 1989년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는 소중한 만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비모임 후에는 ‘동국대 89학번 동창회’ 밴드(주소: band.us/@dgu89)를 개설하여 동문 모임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의 동문들이 가입해서 활동 중이다.

지난 6월에는 ‘89학번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원호, 사회학과)’를 구성하여 10월 개최 예정인 본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석 및 문의처는 이원호 준비위원회 위원장(010-7676-0190), 모교 대외협력실 탁상민 과장(02-2260-3794)이다.

신임 사무총장 임선기 동문

회장특별보좌역 신관호 동문



본 총동창회 박대신 회장은 회칙 24조에 의거,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선기(경행79, 사진) 동문을 7월1일 자로 임명했다.

임 신임 사무총장은 육군 수사단 중앙 수사단장 등 33년간을 군에 복무한 뒤 2016년 현병 대령으로 예편했다. 이후 목원대와 원광보건대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동창회 활동으로는 경찰행정학과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ROTC 21기 동기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신관호 사무국장은 이 날짜로 회장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창립 101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지평을 여는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각급 임원대상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목 표 :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변화와 발전으로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을 모토로 하는 미래지향적 동창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 행사내용 : ▷비전 선포식 ▷만해 한용운스님 생애 조명 ▷문화탐방 ▷단합/만찬 등
-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 21일 (토) 1박2일
- 장 소 : 만해마을 (강원도 인제 백담사)
- 참석대상 : 상임위원 등 임원, 지부/지회 회장단
- 참가비 : 없음
- 교통편 : 9월 20일(금) 오후 2시 모교 출발 (운동장 옆 관광버스 대기)
(단, 개인 출발자는 9월 20일 오후 5시까지 만해마을로 도착해야 함)
- 준비사항 : 개인 상비약 및 세면도구, 일교차에 대비한 복장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02-733-0303, 733-3991)로 문의바랍니다.

2019.8.16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0 東國人名錄 발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원명부 「2020 동국인명록」을 발간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로명 주소와 신 우편번호 도입, 휴대폰 번호(010) 변경 등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정비하여 동국인명록을 제작합니다.

10여년만에 새로 발간되는 동국인명록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도적인 활약을 하는
동문들의 소중한 자료이며, 동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 동문 개인의 정확한 프로필 작성성을 위해 「동국인명록 편집제작실」에서 전화/이메일/
SMS 등으로 확인을 요청드릴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국인명록 내에 포함될 동문기업 홍보에 많은 광고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명함 협찬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인명록 판매수익금은 회원 권리과 모교 발전 등에 후원이
되오니 동문여러분께서 1부씩 소장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위원회’ 발족

5개 분야별 위원회 · 2개 T/F팀 가동

총동창회는 미래를 향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조직위원회 △재정사업위원회 △소통홍보위원회 △문화예술행사위원회 △장학위원회 등의 5개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각 위원회 구성은 5월23일 열린 28대 집행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의결된 사항이다.

위원회별 위원들은 1차적으로 상임부회장 중심으로 위촉됐다. 이에 7월9일 조직위원회를 시작으로 7월 16일 재정사업위원회, 7월23일 소통홍보위원회, 8월 14일 문화예술행사위원회가 차례로 열려 각 위원회별 역할과 활동내용 등을 공유했다. 장학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개최된다.

박대신 회장은 “올해는 동창회 창립 101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이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우선 각 위원회부터 자혜를 모아 동창회가 보다 품격있고 신뢰받는 동창회, 미래에 희망을 주는 동창회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갖고 함께 봉사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과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액션플랜 등을 마련하게 된다.

조직위원회

회원 발굴 · 네트워크강화 집중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오현(체교76, 아미건 회장) 상임부회장과 시도지부 동창회장, 기타 임원 등 총 20명이 위촉됐다.

조직위원회는 1차적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동문들의 역량결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지역, 학과, 친목, 직장동창회 동문 조직 지속 보강, 현장위주 찾아가는 동창회 인식 제고) △동문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참여 유도 (각종 동문회 행사 적극 참여, 우수동문회 및 우수 동문 적극 포상) △세계화 전략(각 나라 및 지역동창회 결성 유도, 대륙별동창회 연합행사 개최) △각급 임원 조직(부회장, 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 등) 정비 및 신규 임원 발굴 등 조직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게 된다.

◆위원장=김오현 ◆위원=△법타스님(인철67) △이경석(도시공학67) △박상범(경영74) △김인수(농학76) △김문선(전자공학79) △이명철(경대원79) △박진호(경영65, 부산지부장) △박태현(경영66, 광주전남지부장) △장세균(철학67, 전북지부장) △김사성(국교69, 충북지부장) △김종욱(행정71, 대전충남세종지부장) △김희배(공경81, 경남지부장) △조덕형(조경84, 경주직할회장) △김석만(사대원89, 사회과학대학원회장) △손기범(행원91, 대구경북지부장) △송경옥(연영84) △이권학(인철86, 모교 대외협력실장) △오육배(경제86) △소일수(체교88)

재정사업위원회

수익창출 사업 우선적 검토



재정사업위원회는 위원 9명을 위촉했으며 김환배(연료공학72, 지디에너지 대표이사)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송일석(미술76, 이엔티정보기술 대표이사) 부회장을 간사로 정해 수익사업 창출을 우선적으로 논의했

다. 김환배 위원장은 재정사업분과 독자적 운영비로 6백만원을 지원했다. 동창회는 과거 BC카드 제휴, GS칼텍스카드 제휴 외에 별다른 사업없이 운영비용을 회비에만 의존해왔다.

◆위원장=김환배 ◆간사=송일수 ◆위원=△김세준(화학71) △오정석(농학72) △김상일(건축75) △최대식(회계79) △윤미정(수교81) △임금동(경영81) △문선배(경대원17)

소통홍보위원회

소통 · 공감 · 화합 분위기 조성

소통홍보위원회는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체적으로 이계홍(국문65,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대행)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윤재민(사학81, 종합출판범우사 대표이사) 상임부회장을 간사로 호선했다.

소통홍보분과위원회는 △‘동창회보’ 발행주기 단축 △핸드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주요 소식 적시 홍보 △수요자중심 홍보이벤트 추진 △다양한 홍보아이템 개발 등으로 동문 참여와 위상 제고를 선도한다.

◆위원장=이계홍 ◆간사=윤재민 ◆위원=△박태권(정외71) △김애주(영문76) △공영대(화학78) △조충미(교육81) △김종필(행정82) △장적스님(선학85)

문화예술행사위원회

문화예술분야 장점 최대 활용

문화예술행사위원회는 모교가 사랑하는 문화예술분야, 특히 인기 연예인들과 동문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는 가운데 보람과 자긍심을 나누는 Win-Win행사로 인

식시키는 한편 크고 작은 행사는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차연신(연영85, 와이에스피엠씨 대표이사)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위원장=차연신 ◆위원=△한상인(도시공학69) △이윤훈(정외73) △허창식(영문75) △홍종표(행원94)

장학위원회

장학기금 조성 외연 확대

장학위원회는 후배들의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장학금 조성이 가장 큰 목표이다. (재) 동국장학회는 장학회 임원들의 출연금이 대부분이며, 일반 동문들의 참여가 미미하다. 이에 오는 9월중 위원회를 열어 △장학위원 확충 △동국장학회 장학금과 단위동창회 장학금의 동일시간, 동일 장소 지급 △독지가 발굴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장=△정환민(농학65) △김진역(경영73) △임선기(경행79) △박윤석(법학83) △김태현(불교84)

회장 직속 2개 T/F팀 구성

28대 1차 상임위원회(2019.5.16.) 의결에 따라 총동창회장 직속으로 ‘총동창회관 건립 T/F팀’과 ‘학교법인개방이사 파송 T/F팀’이 운영된다.

총동창회관 건립 T/F팀은 임선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5명 내외로 금명간 구성할 예정이다.

‘학교법인개방이사 파송 T/F팀’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2명) 후임에 총동창회 대표를 추천하기 위해 이경석(도시공학67) 상임부회장 등 3명을 위촉했다. ‘8월16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동문대표 4명을 추천하였다.

‘동국인명록’ 2020년판 발간 착수



▲ 동국인명록 발간 협약식.

본회는 10여년만에 회원명부인 ‘동국인명록 2020년도판’을 발행한다. 이번 동국인명록에는 1908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2018년 졸업생까지

110여년 동안 배출된 동문 명단과 주소, 직장, 연락처 등이 수록된다. 특히 지난 2010년 발행 이후 10년간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동문들이 신규로 등재돼 최근 동문들의 등정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와 신 우편번호, 휴대폰 번호 (010) 변경 등에 따른 동문들의 데이터 베이스도 전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진다.

동국인명록 초판은 2020년 2월중 발행 예정이며, 회원 명부 1,2권과 동문들의 직장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한 직장별 명부 및 색인부 1권을 포함해 총 3권이다. 한편 본회 박대신 회장과 제작대행사인 (주)트원밸 미디어 유용호 대표는 7월12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회원 명부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한 ‘동국인명록 인명록 발간’ 협약을 체결했다.



창립 120주년

우리금융그룹

해외여행 시작은 우리은행에서

위비뱅크로 환전하면 90%환율우대!

• 주요통화(USD/JPY/EUR)에 한함



원전히 새롭게, 더 간편하게
위비뱅크



간편송금 이렇게 쉽게!
금액 넣고, 계좌 선택하고, 보내면 끝!
• 수수료 면제는 기본!



환전 잘하는 꿀팁!
환율우대 최대 90% (주요통화 USD/JPY/EUR)
기타통화 최대 55% (단, VND 30%)

온국민환전
이벤트 진행중!
(2019.07.01부터)

▶ 간편송금은 1회 100만원 / 1일 200만원 한도 내 이용 가능합니다. ▶ 환전수령은 신청인 본인 외 대리수령 불가합니다. ▶ 영업점 사정에 따라 원하시는 권종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령일 전 해당 영업점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06.27 준법감시인-1173 심의필(유효기간:2020.02.11)

We Believe 우리은행

67학번, 6월7일 6시7분에 모이다

2년전 최초 입학 50주년 행사 자부심 이어가

67학번동기회(회장 성영석) 정기모임이 6월7일 오후 6시7분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열렸다. 박대신(국문69) 총동창회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선배들의 화합과 도전정신을 기렸다.

이날 67학번들은 우리대학 최초로 입학50주년 행사를 치른데 대한 자부심을

재확인하며 60, 70주년까지 올인을 다짐하고 학창 추억과 모교 발전을 기원하는 덕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7학번동기회는 2년전인 2017년 가을에 입학50주년기념 모교방문행사를 갖고 67학번의 6,7숫자에 맞춰 매년 6월 7일 오후 6시7분에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의하고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 금산사서 템플스테이



▲ 금산사 주지이자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인 성우스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전북전주동창회는 8월17~18양일간 김제 금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가졌다. 하계 모임을 겸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장세균(철학67, 전북일보 논설위원) 회장을 비롯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들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이자 주지인 성우스님(승가77)과 차담을 나누며 애교심을 키웠으며, 모처럼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힐링 명상과 함께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88학번, 후배사랑장학금 전달

88학번동창회(회장 차권준, 통계)는 6월11일(화) 서울캠퍼스 다향관세미나실에서 모교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에게 2019학년도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이후 동창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

동을 펼치고 있는 88학번 동창회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세우고 십시일반으로 총 3,900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 54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연회 회장에 남철우 동문


동국언론인 모임인 동연회가 6월18일 임시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남철우(농경 89,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동문을 선출했다. 사무총장은 한고은(신방08, 머니투데이 경제부)동문이 맡았다. 신문사·방송사 등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현재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ROTC11기 정암사 참배

ROTC 11기동기회(회장 최철수) 상반기 야유회가 6월8일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인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태백산 정암사 일원에서 열렸다.

ROTC 7기 '임관50주년' 투어



ROTC 7기동기회(회장 김건작)는 임관 50주년을 기념하여 3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6월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훗가이도(북해도) 관광여행을 다녀왔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훗가이도는 겨울 설경으로 유명하며, 도청소재지인 삿포로시는 1972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다.



▲ 제5회 통일문화축전이 만해탄신 140주년을 맞아 8월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열렸다.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되다

만해 한용운(명진06) 초대 동창회장이 호국 보훈의 달(6월)을 맞아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만해 스님의 생애와 독립을 위한 활동 등을 포스터와 동영상, 웹툰으로 제작해 소개했다. 또 천안 독립기념관은 6월 한 달간 스님의 공훈을 기리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1879년 8월 충남 홍성군에서 출생한 만해스님은 1919년 3·1 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불교계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또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하는 등 문학으로도 일제에 저항한 민족시인이었다. 1933년 55세 되던 해 지금의 서울 성북동 집터에 심우장이라는 집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심우장은 만해스님이 조선총독부를 쳐다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북향 집을 지은 일화로 유명한 곳이며 2019년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1944년 6월 29일 민족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입적했다. 정부는 만해스님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대신 회장, 만해대상 시상식 참석

본회 초대회장을 지난 만해 한용운(명진06)스님의 민족·평화에 대한 사랑과 예술혼을 기리는 2019 만해축전이 8월11~14일 '자유·평화'라는 주제로 만해마을 및 인제군 일원에서 열렸다.

8월12일 오후 1시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박대신 동국대 총동창회장, 최상기 인제군수 등 내외귀빈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평화·만해실천·만해문예 3개 부분을 시상했다.

이번 축전은 8월11일 만해축전 전야제 및 홍보공연 등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중에 제21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제17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제8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등 문화예술 경연대회 및 학술세미나와 지역 대동제 행사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체육대회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축전은 만해축전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인제군, 강원도, 동국대학교,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후원했다.

심우장에서 '만해통일문학축전'

제5회 만해통일문학축전 행사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신일인 8월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사상실천연합(대표 선진규, 불교55) 주관으로 열렸다.

만해탄신 140주년 및 광복74주년을 맞아 제1부 기념식은 △남북문인에게 보내는 통일염원 메시지 낭독 △만해스님 행장 소개 △축하법어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 합창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학술토론회에서는 '만해의 민족정신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을 주제로 김경집(진각대) 교수의 주제 발표, 장성우(동국대 강사) 씨의 토론이 있었다.

만해문학의 향연인 3부는 '만해문학의 삶과 지향점'에 대해 백원기(동방대학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혀혜정(시인) 김영만(시인) 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4부는 '심우장 국가문화재 지정 의의와 과제'에 대해 선진규 대표의 특강이 진행됐다. 심우장은 지난 4월8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본회 박대신 회장을 비롯 홍파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과 진관스님, 김용표 모교 교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캠퍼스 교원 20명 신규 임용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등 혁신 다짐



모교 서울캠퍼스 2019학년도 2학기 전체교수회의가 8월28일 오전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용현 교무학생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회의는 ▲청탁금지법 교육 ▲이사장 스님 격려사 ▲총장 인사말 ▲신규교원 소개 및 인사 ▲퇴임교원 공로 패 전달 및 퇴임인사 ▲3주기 대학기본 역량진단평가 안내 ▲3주기 학사제도 및 학사구조 혁신방향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장 법산스님은 격려사에서 “이사장 소임을 맡게 된 후 전체 교수님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며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동국발전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이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회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식전달 위주의 전공별 교육 과정과 학과중심의 학사제도 운영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앞으로 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 9월1일자로 임용된 신규교원들을 소개했다. 이번 2학기에 ◆문과대학 △홍정민 교수(영어영문학부) ◆이과대학 △곽보근 교수(물리

반도체과학부) △김영관 교수(화학과) ◆사회과학대학 △이정택 교수(경제학과) △유삼현 교수(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경영대학 △이채호 교수(경영학과) △정구혁 교수(경영학과) △최현도 교수(경영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이상룡 교수(바이오환경과학과) ◆공과대학 △이재훈 교수(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김교범 교수(화공생물공학과) △조성인 교수(멀티미디어공학과) △◆사범대학 윤종필 교수(역사교육과) △양병윤 교수(지리교육과) △김언호 교수(체육교육과) △유제광 교수(체육교육과) ◆미래융합대학 △이완희 교수(융합보안학과) △신인수 교수(융합보안학과) △김지희 교수(융합교육원) ◆일반대학원 △임영애 교수(미술사학과) 등 총 20명이 새로 임용됐다.

의과대학 봉사대 28년째 활동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및 동문 의사들은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4일간 경북청송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교수들과 봉사동아리인 하포메서 소속 학생 45명이 참가해 세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진료활동, 응급처치 교육, 농촌 일손돕기, 독거노인 방문, 마을 주변 청소 등의 다양한 농촌 봉사 활동도 펼쳤다.

서울 · 경주 교원 12명 정년퇴임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원 16명이 1학기 말인 8월31일자로 만 65세 정년을 맞았다. 캠퍼스별로는 서울 11명, 경주 5명이다. 이들은 퇴직과 함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명예교수로 위촉된다.

이번에 퇴임하는 서울캠퍼스 교원은 △율다세프 나노정보과학기술원 △윤명철 다르마칼리지(2005.9.1부임, 유라시아 실크로드 소장 역임) △정우영 국어국문학과장 역임) △김영민 영어영문학부(1991.9.1부임, 문과대학장 역임) △김혜중 통계학과(1984.9.1부임, 이과대학장 역임) △홍승기 국제통상학과(1988.9.1부임, 미래캠퍼스개발추진본부장 역임) △오세만 컴퓨터공학전공(1985.3.1부

임, 대학원 컴퓨터공학과장 역임) △박장서 화공생물공학과(2005.9.1부임, 화공생물공학과장 역임) △임식 체육교육과(1988.9.1.부임, 사범대학장 역임) △채환국 체육교육과(1989.9.1.부임, 체육교육과 학과장 역임) △이만희 영상대학원문화컨텐츠과(2005.3.1.부임) 교수이다. 경주캠퍼스는 △고창택 인문학부(1989.3.1부임, 인문과학대학장 역임) △조영석 ICT · 빅데이터학부(1995.3.1부임, 과학기술대학장 역임) △강태호 조경학과(1986.3.1부임, 생태교육원장 역임) △이시영 글로벌 경제통상학부(1983.3.1부임, 기획처장 역임) △김영국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1986.3.1부임, 관광대학장 역임) 교수가 정년퇴임한다.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13위

세계 454위 … 서울 – 경주캠퍼스 지표 합산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QS가 6월18일 ‘2019 세계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모교는 세계 454위, 국내 13위를 기록했다.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4,84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40%)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당 학생 비율(20%) △기업계 평판(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본교와 분교를 통합해 단일캠퍼스로 인정하는 QS의 평가방식에 따라, 모교는 서울과 경주 캠퍼스의 지표를 합산한 수치로 평가 받았다.

모교는 향후 순위 제고를 위해 세계 100대 학과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평판

강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우수논문 게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독려를 하는 한편, 특히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및 변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QS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2009년부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 QS세계대학평가 1위는 MIT, 2위는 스탠퍼드대, 3위는 하버드대가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서울대가 37위, 고려대 83위, 성균관대 95위, 우리대학과 서강대가 공동 454위, 인하대 521–530위권, 건국대 571–580위권, 서울시립대 651–700위권대를 기록했다.

‘창업우수대학’ 창업지원 부문 1위

모교는 6월13일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2019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창업지원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선정은 종합 부문 외에 창업 인프라 부문, 창업 지원 부문, 창업 성과 부문 등 총 3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창업 지원 부문은 대학의 창업 강좌,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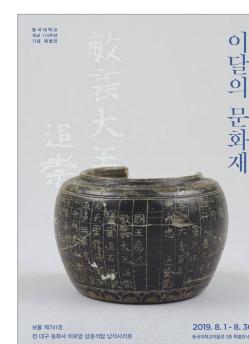
업 예산, 일반인 창업 지원 등을 반영해 총 25점으로 평가했다. 작년에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모교가 23.1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 2년간 창업 지원 부문 1위를 지켜왔던 GIST는 22.7점으로 한양대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 이공계대학 평가 12위

모교가 한국경제신문이 조사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시행한 ‘2019년 이공계 대학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다. KAIST는 종합점수 341점으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지켰다. 2위는 한양대, 3위는 성균관대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5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연구의 질 △산학협력 및 기술 실용화 △창업 · 취업 지원 등 네 부문에 대한 23개 정량평가와 평판 설문조사인 정성평가를 합쳐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물관 ‘납석사리호’ 특별 전시



박물관(관장 최응천)은 개교 11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특별전 ‘이달의 문화재’를 개최한다. ‘이달의 문화재’는 모교 박물관 소장 유물 중 국보와 보물 등의 주요 문화재를 소개하는 전시다.

8월에 선정된 이달의 문화재는 보물 제741호인 前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사리호이다.

사리는 참된 수행의 결과물이자 부처를 상징하며 일반적으로 병이나 항아리 모양의 호(壺), 상자 형태의 함(函) 등에 넣어 탑 안에 안치한다. 사리는 부처와 동

일한 경배의 대상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인 삼국시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에 전시된 박물관 소장 보물 제741호 납석사리호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安置되었던 것으로 통일신라 하대에 제작된 것이다. 사리호 외면의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발원자와 발원동기까지 알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월 문화재로 삼존불비상 전시

모교 박물관이 소장 유물 중 국보와 보물 등의 주요 문화재를 소개하는 ‘6월 문화재로’ 현존하는 7개 불비상 중 하나인 보물 제742호 ‘삼존불비상’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삼존불비상’의 제작시기, 형상, 제작지역, 교류관계, 제작방법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평상시 보았던 불상과는 다른 형태인 불비상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십시일반 장학금 30명에게 지급

매월 1만원씩 참여 ‘동국사랑 1.1.1 캠페인’ 결실

소액 정기기부 ‘동국사랑1.1.1캠페인’으로 마련된 기부금이 희망의 장학금으로 전달되었다.

모교는 6월 24일(월) 저녁 원흥관 i,SPACE에서 동국사랑1.1.1 기부자를 초청한 가운데 ‘동국사랑1.1.1 장학증서 수여식 및 샌드위밋’ 행사를 가졌다.

샌드위밋이라는 행사명은 샌드위치(sandwich)를 먹으며 만나다(we meet)라는 의미를 담았다. 학생들은 장학금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전달했고, 기부자들은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학교에 대한 퀴즈도 풀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장학금은 1학년 학생 30명에게 200만원씩 지급되었다.

윤성이 총장은 “많은 기부자들의 소망

처럼 장학금이 학생들의 절실한 꿈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동국사랑의 마음을 모아준 기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장학생들에게 “동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다. 앞으로 4년간 이 동국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동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국사랑1.1.1캠페인은 지난 2017년 5월, 동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원 이상 기부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2019년 6월 현재 1,100여명의 기부자가 참여하여 총 16억 6천만원이 모금됐다.

경찰사법대학 20년째 장학금 수여

올해 1학기 5천만원…타학과 동문도 참여



▲ 경찰사법대학은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50명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사법대학(학장 최응렬)은 5월 30일(목)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 50명에게 5천만원을 지급했다.

연 2회 개최되는 경찰사법대학 장학금은 경찰행정학부 졸업생, 후원기업 및 명망 높은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최응렬 경찰사법대학장과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홍성권 회장, 홍의태 수석부회장, 에스원 조영식

상무, 정용진 지사장, AMG코리아 김인수 회장, 하이글로벌그룹 윤형관 회장, 법무법인 창조 김태현 실장, 한국가이던스 임정선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장학금 모금에는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경찰사법대학원 총학생회 △에스원 △한국가이던스 △김인수 장학회 △김태현 장학 △하이글로벌그룹 명량문화재단 △법무법인 창조 △교차로 △대성강업 △경찰행정학과 고시동호회 등이 참여했다.

동국기업인모임 장학금 5천만원



▲ 홍익표(오른쪽)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기업인모임(DHC, 회장 홍익표)이 6월 19일(수) 오전 11시 30분 윤성이 총장을 예방하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익표 회장(건축 73)을 비롯 성영석(경영67), 김오현(체교 76), 최대식(회계79), 오육배(경제86) 회원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애주 대외

협력처장 등이 자리했다.

동국기업인모임(DHC)은 동문 기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창립했으며, 친목 모임, 골프, 포럼, 모교 행사 참여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1억 1천여만원을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동국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윤성이 총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모교를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익표 회장은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 장학금이 꼭 필요한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면학정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어영문학부 장학금 3천만원 기탁



▲ 송영근(오른쪽) 동문이 3천만원을 기탁했다.

송영근(영문84, 흠이엘 대표이사) 동문

이 7월 10일 윤성이 모교 총장에게 영어영문학부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송동문은 우성건설 평사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후 삼성물산 주택영업 담당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자제품·부품 관련 기업을 이끌고 있는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전달식에는 송영근 대표를 비롯해 윤명금 동국대 영문과 前동창회장(영문 77), 황현 동국대 영문과 동창회장(영문 78)이 함께 자리했다.

**품질 좋고
가격 싸고
오래 쓰는
B2B 제품 찾으신다구요?!**



삼원아트무역이 찾아갑니다!
30년 삼성전자 B2B 파트너 경력
자타공인 전산 사무용품 업계 1위
2019 SAMSUNG B2B PARTNER

삼성전자 프린팅

정품 잉크/토너부터
용지까지

삼성전자 플립FLIP

인タラクティブ 플립보드

삼성전자 B2B 가전

TV, 모니터, 하만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즈니스 가전
에어드레서



삼성전자 B2B 우수 충판 삼원아트무역 [대표번호] 02)521-8857 [찾아오는 길] 서울 용산구 원효로 58길 15-15

SAMSUNG | 비즈니스 솔루션 파트너
(주)삼원아트무역

전국 각지서 다함께 ‘동국발전’ 크게 외치다 ...

부산동창회

“총장·동창회장 동시 방문 처음”

각종 대학평가순위 상승에 큰 관심 보여



모교 윤성이 총장과 본회 박대신 회장이 지난 5월28일 오후 부산동창회를 방문, 박진호 회장을 비롯한 현지 동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날 박진호 부산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모교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의 부산지부동창회 동시 방문은 창립이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회원 모두는 쌍

수들어 환영한다”면서 “모교의 발전은 동문들에게 큰 관심사로서 특히 각종 대학평가 순위 상승에 힘써주시고, 총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세계

100위권 10개학과와 국내 10위권 진입을 꼭 성취해주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총장 취임과 함께 우수한 기획과 계획을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이 일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대학 입학할 때의 대학평가 등위가 졸업할 때는 크게 상승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변화된 동국, 활기찬 동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우리 총동창회는 동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동창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과 학과, 직장 동창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동시에 각 단위동창회 임원워크숍 등을



박진호 회장

통해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환영행사는 모교 및 총동창회 방문단과 현지 동문들이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한 목소리로 동국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으고 덕담과 격려로 만찬을 즐겼다.

모임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스님, 전재수 국회의원,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 정증식 (주)성우정공 회장, 이영구 전 부산MBC, 강병령 광도한의원장, 이주환 전 부산광역시의원, 최영식 부산동창회 사무국장 등 현지 동문 30여명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윤성이 총장을 비롯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승용 기획처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전미경 교육혁신처장, 정명식 비서실장, 이창한 미래융합대학장, 김종기 비서팀장이 방문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박대신 회장과 김오현 상임부회장, 윤재민 상임부회장, 박윤석 상임부회장, 신관호 사무국장이 방문했다.

대구동창회

“함께 걷는 길에 에너지가 있다”

모교 총장·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여



대구경북동창회(회장 손기범, 행대원 91, 동부허병원 상임고문)의 정기모임은 어느때보다 반갑게 만나 안부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고 행복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윤성이 모교 총장의 대구경북동창회 방문을 환영하는 대구경북동창회 정기모임이 6월21일 저녁 대구시 범어동 그랜드호텔 5층홀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손기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혼자 걷는 길에는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지혜·자비·정진이 있고, 셋이 있는 길에는 따뜻한 동국인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함께 손잡은 동국인 에너지가 있다”면서 “모교 총장님, 총동창회장

님과 즐거운 동행이 되어 다함께 동국인의 자긍심을 꽂피우자”고 말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말 동창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찾아가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5월 부산에 이어 이번에 대구를 방문했다”면서 “오는 가을에는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대구경북동창회를 비롯한 단위동창회 임원워크숍 등을 통해 총동창회와 단위동창회간 상생과 협력방안, 모교 발전 기여 등에 대한 제반 논의로 동국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발전과 관련해서 동문사회는 대학평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듣고 있다. 중앙일

보 평가를 보면 2014년 11위가 최고였다가 최근 17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3년 안에 10위까지 끌어 올리겠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유

지와 직결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

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동

문 여러분께서도 모교 발전에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지혜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

곡히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이종호(무역84, 송백영농조합 대표)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행사는

△참석자 소개 △자랑스러운 동국인 감사 및 공로패 수여 △동문 시인 자작시 낭송 △재무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날 모교 총장 감사패는 △이종극(경영82, 우원약품 대표) △박영순(한의원80, 청도박영순한의원장)동문에게 수여됐으며, 총동창회장 공로패는 △김동읍(국문80, 조광종합포장 대표) △김현주(경행87, 경북도경 교통계장) △황석선(의학90, 대구중구보건소장)동문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어 박수원(국교72, 언어영역·통합논술 대표)동문이 자작시 ‘피어나며 무너지며’와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를 낭송해 큰 박수를 받았다.

2부는 SBS 개그맨 공채 8기 ‘웃찾사’의 김용현(법학02)동문이 사회를 맡아 건배 제의와 개그, 만찬, 장기자랑 등으로 여흥을 즐겼다. 특히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끈끈한 선후배의 정을 더



손기범 회장

욱 두텁게 했다.

한편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허창식·김오현 상임부회장, 조덕형 직할경주동창회장과 대구경북회장은 공식 회의를 마치고 2차, 3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소통과 상생을 재확인했다.

이날 휴날레는 이종극(경영82)·마성희(국사82) 동문부부가 전례없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20여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발렌타인 30년산 2병을 내놓는 등 아름다운 술상을 배려해 전례없는 화제가 됐다.

이번 모임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경주캠퍼스=50만원 △이종극(우원약품)= 50만원 △박영순(한의원장)= 50만원 △조덕형(직할경주동창회장)= 20만원 △손기범(회장)= 18만5천원 △차대식(구의원)= 10만원 △이종호 사무총장= 10만원 △박대신총동창회장= 혼띠 50개 △동부허병원= 타율 60장 △손기범 회장= 경옥고 3개 △이규현(한의원장)= 공진단 2박스 △박영순(한의원장)= 아이스 흥시 5박스 △손창수(한의원장)= 보약 2개 △마성희= 발렌타인 30년산 2병



▲ 꽃다발을 받은 박대신 회장과 윤성이 총장.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은 마음의 고향

대전충남세종동창회

“새롭게 변하는 지역 동창회 될 터”

손근익 · 문명성 두 동문에게 공로패



대전충남세종시지부(회장 김종욱, 행정71) 7월 월례회 겸 박대신 총동창회장 방문 환영행사가 7월16일 오후 7시 대전시 대흥동 중국대반점에서 열렸다.



김종욱 회장

박대신 회장은 방문인사를 통해 “올해는 총동창회가 101주년을 맞은 해로서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오는 9월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각급단위 임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면서 “우리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박종윤(경제56, (주)세창 회장) 고문은 축사에서 “최근 지역동창회 활동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

서 “총동창회장 방문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하는 지역동창회가 되어 동국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

이날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지역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및 동창회 위상 제고에 앞장서 온 손근익(건축77, 선건축 대표이사) 前회장과 문명성(농경85, 미래감정 평가법인 대전법인 대표) 前사무국장에게 총동창회장 공로패를 수여, 위로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윤, 신윤표(행정61, 前한남대총장) 고문과 이규성(식공64), 김홍만(행정65, 前국회의원), 동화스님(불교75, 대전동부 보광사 주지), 이석구(교대원83, 전국문중협의회장) 동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행사 참석에 앞서 박종윤 고문과 신윤표 고문을 예방하고 동창회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경남동창회

“동국인 자부심 걸고 다시 뛰자”

박윤석 마산지청장 취임 축하회 겸해



총동창회장의 경남지부(회장 김희배, 공경81, 라이라이중국어교실 창원지사장) 방문행사가 8월9일 마산합포구 일번지 횟집에서 30여명의 동국가족



김희배 회장

이 함께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8월2일 창원지점 마산지청장에 부임한 박윤석(법학83) 동문의 환영회를 겸해 진행됐다. 본부에서 박대신 회장을 비롯한 이경석(도시공학67) 김오현(체교76) 정증식(공경76) 윤미정(수교81) 차연신(연역85) 문선배(경대원17) 상임부회장과 이재형(불교64) 지도위원, 신관호(경제69) 회장 특보 등이 참석했으며 박진호 부산동창회장, 조덕형 직할경주동창회장도 멀리서 달려와 합류했다.

김희배 경남지부장은 “총동창회장의

경남지부 방문은 처음 있는 일로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동창회 활동도 예전같지 않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어 동국들의 자부심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수(경행76, 前창원서부경찰서장) 경남지부 전임 회장은 박대신 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창원의 노래’를 증정했다.

총동창회는 경남지부 조상훈(경영01, 기업은행 창원지점 과장) 사무국장에게 경남지역 동문 주소록을 전달하며 동문 발굴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동국’ 마크가 새겨진 혁띠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한편 경남지부 모임에 앞서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마산지청장실을 방문, 박윤석 지청장에게 ‘동국’ 글자가 새겨진 기념 벽시계를 전달한뒤 차담을 가졌다.

강릉동창회

“작지만 강한 모임 만들겠다”

영동지역 동문끼리 만남도 추진 계획



강릉동창회(회장 김동식, 체교70, 前강릉여고 교장) 3분기 정례모임이 8월27일 오후 초당동 초당한정식집에서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이날 모임에 총동창회에서는 지역순회 방문의 일환으로 임선기 사무총장과 신관호 회장 특보가 참석, 동문들을 격려했다.



김동식 회장

김동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화려했던 우리 강릉동창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가 3년전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 아직은 미약하다. 동문 한 분, 한 분이 주변 동문들을 발굴해 함께 참여한다면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면서 “오늘은 특히 서울 총동창회에서 사무총장 등이 일부러 방문하셨고, 또 최근에 강릉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택수(경행87)동문이 바쁜

중에도 와주셔서 용기 백배되었다. 작지만 강한 모임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임선기 사무총장은 “강릉동창회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 설립 101주년을 맞이한 총동창회는 새로운 100년의 지평을 열 비전체계를 완성해서 오는 9월20~2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우리 동국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운 동창회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인사했다.

모임에는 초당한정식집을 운영하는 56학번 김진안(국문)동문과 박용하(정치77, 前 모교 경주캠퍼스 팀장) 사무국장을 비롯 경찰, 교직, 스키부 축구부 야구부 출신 동문 등 50년대부터 90년대 학번까지 골고루 15명이 참가했다. 이날 동문들은 “총동창회에서 강원도 전지역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천년의 질문' 베스트셀러 상위 계속



조정래 동문

소설가 조정래(동문·국문학과 62학번)이 최근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3권(해냄출판사)을 펴냈다. 한국의 민족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답게 '천년의 질문'이 나오자마자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촉발시키면서 계속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책의 표지에 나와있는대로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오늘 당신에게 대한 민국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가 있은 이후 수천년에 걸쳐서 되풀이 되어온 질문, 그 탐험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걸어놓고 등장인물 7명이 그려 나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8년째 대한민국 100대 CEO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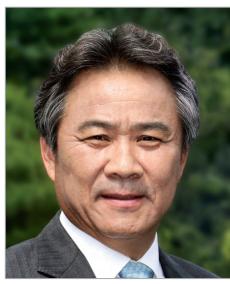


김정남 동문

김정남(행정 72,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동문이 매경이코노미가 선정한 100대 CEO에 올해로 8번째 이름을 올렸다. DB 그룹(옛 동부그룹)의 '믿을맨'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

문은 1979년 동부그룹에 입사한 뒤 1984년 동부고속에서 동부화재로 옮긴 후 줄곧 손보업계에서 한 우물을 팔았다. 그는 2010년 당시 동부화재 최초의 내부 출신 CEO에 올라 9년째 회사를 이끌며 업계 최장수 CEO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IT와 보험의 융합을 뜻하는 인슈어테크를 더욱 고도화해 업무 전반을 혁신하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IOC 위원 선출 ... NOC 자격 '최초'



이기홍 동문

이기홍(불대원 12, 대한체육회장)동문이 6월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총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국

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최초의 IOC 위원이자, 통산 11

번째 IOC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IOC 위원의 정원은 115명이며 국가·대륙올림픽위원회 대표 15명,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15명, 선수위원 15명, 개인자격 7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IOC 위원은 95명이고, 이번에 선출된 신규 위원 10명을 합쳐 105명으로 늘어난다. IOC 위원은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에 참여한다. 외국을 방문할 때엔 국가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김후곤 동문

김후곤(법학 84)동문이 7월 31일자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특수

사법연수원 25기로 △부산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압의혹으로 '제2의 검란(檢亂)' 조짐이 보이자 내부 계시판에 글을 올려 갈등 봉합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첫 여성 교장



이은정 동문

이은정(경행 84, 치안감)동문이 7월 초 신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 교장에 부임했다. 여성이 중앙 경찰학교 교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

감과 서울·부산·인천 등의 지방경찰청장인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에서 셋째로 높은 계급이다. 지난해 7월 치안감으로 승진, 역대 두 번째 여성 치안감이 됐으며, 경찰 내 대표적인 여성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 마포서장, 경찰청 보안1과장 을 지냈다. 2015년 경무관으로 충남지방 경찰청 2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덕화·이경규, 모교 객원교수 임용



▲ 오른쪽부터 이덕화 동문, 윤성이 총장, 이경규 동문.

낚시여행 TV프로그램 '도시어부'에서 활약 중인 방송인 이덕화(연영76), 이경규(연영85) 동문이 모교인 동국대학교 강단에 섰다.

모교는 연극학부 선후배이기도 한 이덕화, 이경규 씨를 연극학부 객원교수로 임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편 객원교수로 임용되는 두 동문은 올해 2학기부터 동국대 연극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
주지 이산 현문
유나 보장 영일
창주 수담 인해
염불원장 영
박물관장 백
성
경
재무국장 현
성
경
현
담
원
주
법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부주지 산옹 지은
전계사 중산 혜남
현사국장 송정
화포교국장 양관
호법국장 친주
원주범용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팩스 : 055)382-7196 www.tongdosa.or.kr

辯護士 / 辦理士
吳 淑 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321-4066	Fax.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취임·영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송석구(철학58) 동문이 7월1일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부임했다. 모교 제13~14대 총장을 지냈다. 동덕여대 및 가천의과대학교 총장, 국제신문 사장,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사회통합위원장, 삼성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세종포스트 주필



이계홍(국문65)동문이 세종시에서 발행되는 세종포스트 신임 주필로 8월2일 부임했다. 1975년 동아일보사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30여년간 동사 문화부 및 여론조사부 차장을 거쳐 문화일보 문화부장·제2사회부장·체육부장, 서울신문 논설위원 수석 편집부장·통일문제연구소장(국장) 등 정통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박윤석(법학83)동문이 8월6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으로 영전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9기)에 합격한 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동부지검사5부 부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지방조달청장



박수천(경제88)동문이 5월28일 제31대 전북지방조달청 청장에 취임했다. 기획조정관실 조달회계팀장, 인천조달청 장비구매과장 등을 두루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이다.

경산소방서장



조유현(경행)동문이 지난 6월 경산소방서장에 부임했다. 1997년 소방간부후보 공채 9기로 소방공직을 시작해 경산소방서 소방행정담당, 고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경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고령소방서장을 역임했다.

통일정책비서관 임명

김창수(대학원 박사) 동문이 7월4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통일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립되자 사무처장을 맡아 사상 첫 24시간 남북 연락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수행했다.

동해 광희라이온스 회장



손형순(무역84, 쇄운동광산 현장관리소장) 동문이 지난 6월 동해 광희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손 동문은 7월1일 동해 시청을 방문, 회장 이·취임식에서 기증받은 쌀 10kg짜리 6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기탁했다.

기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초허당 권오춘(영문57) 동문이 8월7일 (수) 오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으로서, 권오춘 동문은 지난달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완납, 회원으로 가입됐다.

후배 축구선수단 격려



박학도(무역69, 태백영암고속 대표) 동문이 8월21일부터 26일까지 태백경기장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 중인 모교 축구부 선수들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고기 파티를 열어 위로했다. 박 동문은 “직접 경기장에 나가 응원하다보니 모교가 그립고 후배들의 뛰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힘내라고 격려해준 것 뿐이다”고 겸손해 했다.

예산미협·인천 원로작가 교류전

김영희(법학60,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장) 동문은 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 예산문화예회관전시실에서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 인천미술 원로작가회 초대교류전’을 열었다.

프로농구 2018시즌 신인왕



프로농구 KGC(한국 담배인삼공사) 소속 가드 변준형(체교18) 동문이 2018 시즌에서 신인상을 받아 기대주로 떠올랐다. 2018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KGC 유니폼을 입고, 29경기 평균 19분 2초 출전, 8.3득점, 2.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경찰청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관호(경행84)동문이 전남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영전했다. 인천 국제공항경찰대장,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제1부장,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차치경찰추진단장,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문수(경행80)동문이 치안감 승진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에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영전했다. 1988년 경위로 임용돼 괴산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2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역임했다.



전북지방경찰청장

조용식(경행82) 동문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됐다. 1987년 경찰에 투신해 전북청 경무과장, 김제서장, 익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서울청 경무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경남지방경찰청장

진정무(대학원박사수료)동문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경찰대 4기로 토론토 총영사관 주재관,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 경남지방경찰청 2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등을 지냈다.



제주지방경찰청장

김병구(대학원박사수료)동문이 경찰청 경비국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다. 경찰대 5기로 창녕·과천·은평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관을 역임했다.

경무관 인사발령 (7월5일)

고기철(경행82)	경찰청 차치경찰추진단장
이상률(대학원박사수료)	경찰대학 교수부장
윤동춘(국문80)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전창학(경행79)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박지영(대학원박사)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총경 전보 발령 (7월12일)

강신걸(경행8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이동민(경행82)	전북지방경찰청 임실경찰서장
최성영(경행83)	서울 금천경찰서장
박봉규(경행83)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희중(경행85)	강원지방경찰청 정보과장
황석현(경행85)	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장
오중익(경행86)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장원석(경행86)	제주 동부경찰서장
김택수(경행87)	강원 강릉경찰서장
박종삼(경행85)	전북 무주경찰서장
김범상(경행88)	전남 완도경찰서장
박준성(경행88)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장
박현규(경행88)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장
박주현(경행89)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여진용(경행89)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정성일(경행89)	경기 연천경찰서장
김문영(경행90)	강원 정선경찰서장
김기현(경행92)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
박재현(경행92)	강원 속초경찰서장
김찬수(경행93)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신현규(역사교육79)	강원 태백경찰서장
오세찬(화학82)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교육)
유윤종(대학원박사수료)	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팀장
김홍훈(행원10)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박영수(전자공학)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장

동국대 동문 및 가족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557)

대표상담전화
1577-2050
www.nnoble.co.kr



No.1 노블레스 결혼정보 결혼엔 엔노블

品格있는 아름다운 만남

22 명문대동창회 제휴 | 46 관공대기업 제휴 | 2,978 전문직 종사자 | 605 100억대 이상 자산가 (2019. 3월 기준)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국내 최고의 22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경희대, 중앙대,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육사, ROTC 중앙회, 학사장교 총동문회,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세대ROTC동문회, 연세대 경영대학원, 인제대 의대, 경상대 의대, 고신대 의대, 아주대 의대, 중앙대 의대, 전북대 의대 등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2회, 2018 모범기업인 “서울시장대상” 수상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 – 수준높은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서비스
- 3:1 책임관리- 상담매니저, 매칭매니저, 서비스지원팀의 삼위일체 관리
- 프로필 안심 보증제 – 프로필이 허위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서울본사- 압구정 7층 사옥, 엔노블타워 (노블결혼정보사 중 최대규모)
- 닥스클럽 결혼정보회사 인수(2015년 4월)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 부산 해운대 직영지사 및 미국 3개 협력지사 운영(뉴욕, LA, 애틀란타)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 혼 정 보 회 사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11(신사동, 엔노블 B/D)
 해외지사 | New York 718-487-9751 L.A 213-342-8566

부산지사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11호(우동, 트럼프월드센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 강남-국내-15-0005

동국대 중흥 중심에 ‘백성욱 총장’이 있었다



승려 · 독립운동가 · 불교학자 · 교육가 · 정치인 등 맹활약

**석조관 등 校舍 대대적 신축
최고 교수진 · 우수학생 유치**

시대의 活佛로 불려

백성욱(1897~1981 · 서울) 박사는 ‘시대의 活佛’로 불려 진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佛戒를 받은 대처승려로서 동국대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을 1919년에 졸업, 그해 3.1운동과 상해임시 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며, 1922년엔 독일 Würzburg 대학에서 〈佛教純全哲學〉, 즉 ‘불교형이상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불교철학자다. 독일에서 1925년 귀국한 후 1926년~28년까지는 모교 불교중앙학림 교수를 지내고, 1930년 금강산으로 입산, 안양암 지장암 등에서 10년간 수도생활을 하다 1940년에 하산했다.

백 박사에게는 따라붙는 명칭이 많다. 1950년 2월부터 동 7월까지 내무부장관을 지냈고, 1951년 광업진흥공사 사장, 1951년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 1953년 동국대 총장, 1955년 동국학원 이사장(동대 재단), 1955년 대광유지주식회사 사장, 1957년 고려대장경 보존회 회장(이때부터 동국대에서 고려대장경 영인 본 간행 시작), 1957년 재단법인 경기학원 이사장(경기대)을 역임했다. 승려, 독립운동가, 불교학자, 교육가 이외에도 시인, 정치가(1956년 부통령 출마), CEO, 도인 등 명칭이 많다. 그러나 그의 본분은 역시 佛이다. 그러므로 그를 ‘살아있는 부처’ 같다 하여 사람들은 ‘활불’이라 칭하였다.

백성욱 박사는 총장 재임시절 매주 월요일마다 ‘인류문화사’ 특강을 열었다. 이 특강은 재미있고 그때 학생들이 좀처럼 접해 볼 수 없는 세계사와 다양한 인류문화에 관한 것들이어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강의 장소는 8백석이 넘는 대학 중 강당인데 매번 자리가 꽉 채워졌다. 학점을 요하는 강의도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교수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명강의로 소문이 나서 심지어는 당시

동숭동에 있던 서울대 학생들도 이 특강을 들으러 많이 왔다.

현 서울캠퍼스 건설의 일등 공신

동국대학교는 서울의 案山인 남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본부와 명진관이 있는 캠퍼스 중심에 서면 청와대가 정면으로 마주 보이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밤에 보면 서울의 야경이 장관이다. 시내 대학들 중에 이런 명당을 차지한 대학이 어디 있겠는가!

백성욱 박사는 총장 취임 다음해인 1954년 4월 한국건축계의 거장 송민구 설계사를 초빙, 대학 건축본부 소장으로 임명하고, 교사 신축에 일로매진한다. 불교 종단과 재단에서는 1946년 동국대학 인가를 받고 해화동 전문학교 시설로서는 새로 입학하는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 필동의 서본원사 자리를 동대 캠퍼스로 미군정으로부터 불하받아, 임시 교사를 꾸려가며 수업을 진행했다. 이때는 아직 그대로 보존된 서본원사 건물들과 숭

니-대통령은 격노하여 비서에게 저 짓을 하는 자가 누구냐? 고 물었단다.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가 동국대학교를 짓는 중이랍니다”하고 비서가 대답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내 얼굴에서 노기를 풀며 “응 그러나! 그럼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백성욱 박사였기에 망정이지,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학교 건설 공사는 당장 중단되고, 이어 취소되었을 것이다. 동대로서는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아리 고개를 넘으시다 남산 동대 건설 현장을 멀리서 보시고, 경무대로 드시기 전 여기에 들려 격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대는 사기충전 할밖에….

열정과 능력과 힘을 가진 지도자

백성욱 총장은 영웅적 카리스마가 있었다. 6.25 전란 직후 어려움 속에서도



▲ 백성욱 총장시절 건립된 명진관(석조관) 신축 관계자 기념사진.

정전 등 목조 기와지붕 7동 617평, 그리고 판자 건물 2동 80평이 시설의 전부였다. 1953년 전쟁을 겪은 후라 백성욱 박사 취임 당시는 그마저도 황폐화된 불모지였다. 더구나 이제는 여러 단과대학을 거느리는 종합대학교가 되어서 큰 규모의 건물과 교육 시설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불모지에 백성욱 박사는 ‘황야의 거인’으로 등장했다. 다행히 서본원사 터에 학교를 짓을 수 있는 대지가 23,987평이 확보되어 있었다. 백 총장은 대학 후원회(회장 李潤鎬)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받고, 미8군의 원조도 받아 대학본부와 강의동 과학 실험실 등을 건설해 나갔다.

남산 공사 한창때 대통령도 북인

연도는 미상이지만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현재 청와대 자리)에서 마주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니 여기에 큰 공사판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와 바로 마주한 자리에 감히 남산을 까고 건물을 세우다

불과 몇 해만에 동국대를 명문 사학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카리스마 덕이었다. 대학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과 시설이 하드웨어라면 여기에 들어 갈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수준 높은 교수진을 짜는 것이고,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며, 엄정한 학사 관리와 효율적 재무관리다. 백총장의 카리스마는 하드-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에 다 능했다. 50~60년대 동대 교수진은 참으로 쟁쟁했다. 양주동, 서정주, 조연현, 최호진, 조동필, 신태환, 김갑수, 최재서 등 교수진은 한국 지성을 대표할만 했다.

백총장은 겸직했던 광진(광업진흥공사) 사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동국대학교 총장, 동창회장, 재단이사장까지도 함께 겸직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였다. 그래서 항간에선 독재자란 말을 듣기도 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동국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대학본부와 강의동인 석조관(현 명진관), 그리고 석조관 뒤에 있는

과학관, 그 옆에 거대한 온실을 갖추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직 사용전인 도서관과 교수 연구실을 겸한 거대한 건물이 동편에 완공되어 있기도 했다.

대학 본부는 8백석의 큰 강당과 총장실 이사장실, 각 학처장실 그리고 각종 행정사무실, 연영과 실험극장, 강의실 보건소 동대신문사, 학생 직원 식당 등 대학의 핵심은 물론 온갖 부대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다. 모두가 백성욱 총장의 땀이 어린 시설물들이었다.

1958년에 완공한 석조관(현 명진관)이 2015년에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3층의 이 석조 건물은 건축학적으로 1950, 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한국에도 이런 건축물이 있나! 하고 놀랄 정도로 중후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이 석조관을 가리켜 동대를 건설한 ‘활불 백성욱 총장’의 숨리라고 평가한다. 사리가 꼭 스님의 법체를 불로 태워야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전에 부처님 수행이 철저하고 그의 피와 땀, 혼으로 만들어 남긴 업적이나 유물들이 佛心을 상징하는 불멸의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 수행자의 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대 대학 인물들 기려 나가길

1906년 동대문구 창신동 한 사찰에서 출발한 근대 교육기관인 명진학교가 금세기들어 이만큼 국제적인 큰 대학교로 성장하기까지는 불교종단의 설립자들은 물론 그 외에 수많은 교수 학장, 총장 등 인재들이 피와 땀을 쏟은 결과일 것이다. 불교 종단 학교라고 해도 현실 사회에서 불사를 행하고 교육 사업 등 각종 일을 이루어 내는 것은 부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중생, 즉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백 총장을 비롯해 수많은 동문들이 그의 족적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설립자측인 불교 종단은 종권의 실세들이 수시로 바뀌고 종단에서 파견되는 범인이사들도 잠시 스쳐가는 자리이니 누가 동대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통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백성욱 총장을 총장으로 추대한 재단이사회는 이른바 대처승측 종단이었고 지금은 비구승측 종단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백성욱 총장이 동대 빌전의 중흥조라 해도 오늘날 조계종 종단에서 그를 크게 떠받들기는 어렵다. 때문에 결론으로 말하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나서서 대학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대 대학의 인물들을 기리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송재운
(철학60)
모교 명예교수

Beyond the First, Be the Best!

1973년 국내 건설사 최초 중동 진출한 횃불신화의 주역
대한민국 건설 역사와 함께한 건설 名家
SM삼환기업은 끊임없는 변화와 풍부한 경험으로 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SM 삼환기업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의점
금융파트너

고객과 함께하는
든든한 국민의 평생 행복파트너

KB생명보험



* KB 생명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 제 313호 (2019.4.26)

부여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농산리고분군

거창김사지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UNESCO World Heritage City

백제 고도

뮤지컬 '싯다르타' 올인하다

9월6일 오후 8시 동국인 위한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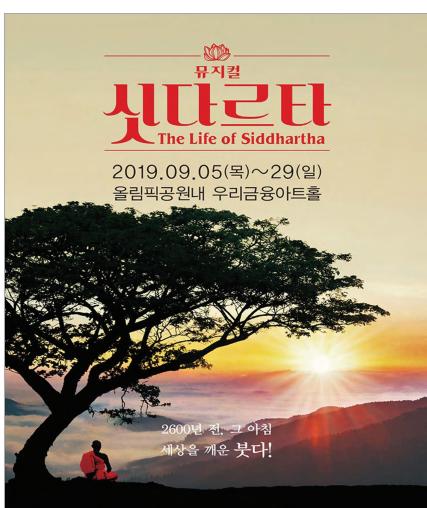
김면수 대표프로듀서



권경하 제작감독



사기순 홍보이사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서

김면수(행정79, MSMC 대표프로듀서) 동문이 뮤지컬 '싯다르타' 총 제작을 맡았다. 권경하(연영84, 배우)동문은 제작감독을, 사기순(국문84, 민족사 주간) 동문은 홍보이사로 참여했다.

동문 3인이 성공적 공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뮤지컬 '싯다르타'는 오는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총30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1184석)에서 만날 수 있다. 6일(금) 오후 8시에는 윤성이 총장과 박대신 회장을 비롯 동문, 교직원, 재학생 등을 초대해 '동국인 문화예술의 밤' 행사로 특별공연을 갖는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2600여년전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처음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고타마 싯다르타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한 구성과 다양한 장르의 음

악, 그리고 새로운 무대기술로 공연하는 대극장용 창작 뮤지컬이다. 특히 뮤지컬 싯다르타는 인도 북부 카필라바스투의 태자 싯다르타가 화려한 왕관을 버리고 출가해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연대기가 아닌 신부를 맞이하던 19세 그 날, 출가를 결심하던 29세 그 날, 깨달음을 얻은 35세 그 날, 그 세 번의 그 날을 조명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120분 동안 전개되는 뮤지컬 드라마와 22곡의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 전 왕 궁생활부터 사문유관(四門遊觀) 후 태자 싯다르타가 전륜성왕의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과정, 전하는 가르침 등이 무엇 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김면수 대표 프로듀서는 "예수님을 다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세계적인 뮤지컬이 있는 반면 부처님을 조명하는 뮤지컬이 없는 게 아쉬워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뮤지컬 싯다르타를 만드는 만큼 앞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기순 홍보이사는 "우리 동문들부터 서로서로 이어져 존재한다는 인연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NH농업은행 등이 후원 및 협찬했다.

황금종려상 '기생충' 주연



조여정(연영99)동문이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첫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 '기생충'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영화에

서 짧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조여정)역을 맡았으며 5월30일 국내 개봉됐다. 1997년 잡지 모델로 데뷔해 영화 '흡혈형사 나도열' 드라마 '야인시대' '장희빈' '애정의 조건' '얼마나 좋길래' '집으로 가는 길'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제33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심정수(교원80, 조각가)동문이 6월24일 권위있는 미술상인 제33회 김세중조

각상을 수상했다. 짧은 시절부터 털·벽수·장승·솟대·목어·허수아비·농기구 등 전통 유산을 현대적으로 조형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한국적 조형의 본질을 조각으로 구현하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김상지(불교) 동문이 6월9일 행초서 '맹호연 시-봉림사 서쪽 봉우리에서 노닐고'라는 작품으로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역대 서예부문 대상자 가운데 최연소 수상자로 20여년간 서예에 매진하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서화예술대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동문신간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벽산 원행스님(불원00, 조계종 총무원장)이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조선 시대 가장 긴 상소문인 '간폐석교소'를 옮겨 조선 불교를 지킨 백곡 처능을 재조명했다. 책은 원행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저본으로 삼고, 백곡의 생애와 함께 우리말로 번역한 '간폐석교소'의 원문을 덧붙이며, 또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담아 구성돼 있다. 여러 권의 불교 교양서를 집필한 대표적 학승 자현스님 이 공동 저작으로 참여했다.

- 벽산 원행 / 조계종출판사

소설 정약용



소설가 정찬주(국문73) 동문이 장편소설 '소설 정약용'을 펴냈다. 작가는 지난 2012년 정약용 탄신 2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가 2012년의 기념인물로 다산을 지정한 것에 맞춰 〈다산의 사랑〉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은 다산이 강진에서 18년 간의 오랜 유배생활에서 벗어난 해(解配)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실학을 집대성 한 다산 정약용의 빛과 그림자 중 지금까지 깊게 가려진 그림자 부분에 눈을 맞춰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한국인의 전형적인 정체성을 발현한 인간으로 승화시켰다.

- 정찬주 / 하결미디어

자금성의 노을



서인범(사학79, 동국대 사학과 교수) 동문이 중국 황제의 후궁이 된 조선 세자 '자금성의 노을'을 6월23일 출간했다. 명나라 시절 두 황제의 후궁이 된 언니 한씨는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의 후궁 여비가 됐으나 영락제가 죽으면서 순장을 당한다. 이어 동생 한계란도 공녀로 선발돼 6대 정통제를 거쳐 7대 경태제에 이르기까지 황실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며 지냈다. 두 여인 이야기는 명나라 궁궐사를 시작으로 환관사·외교사·무역사, 그리고 조선의 정치사 등 전반에 걸쳐 펼쳐져 있다.

- 서인범 / 역사인

보고서의 법칙



백승권(국문85, 커뮤니케이션컨설팅&클리닉 대표) 동문이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써야하는 500만 직장인의 바이블이 될 '보고서의 법칙'을 펴냈다. 매해 평균 200회, 800시간을 강의하는 저자의 실전보고서 강의록이기도 한 이 책은 "패턴을 알아보고서가 쉽다"고 안내한다. 우리나라 보고서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혁신의 내용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해 옛은 이 책은 직장인들이 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매뉴얼로 설계되어 있다. 보고서를 둘러싼 직장의 현실부터 보고서를 쓰는 목적, 작성 원칙, 기본 논리와 형식, 종류별 작성 방법과 팁까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쓸모 있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

- 백승권 / 바다출판사

자주 국방의 길



조영길(행원88, 전 국방부장관)동문이 지난 5월 '자주국방의 길-자주국방의 열망, 그 현장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냈다. 무려 12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은 저자가 군인으로 40년, 그중 30여년을 자주국방 건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자주국방을 향한 열망과 현장의 기록이다. 저자는 30여년간 맹렬히 타오르던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이유는 외세의 간섭이나 견제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도력의 결핍, 군인의 본분과 가치관의 혼란을 이유로 든다.

- 조영길 / 플래닛미디어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9년 5월 22일 ~ 8월 27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고문분담금

100만원



김행남 (61정치)
예비역 육군소장



박종윤 (56경제)
세창 회장



백경남 (61정치)
모교 명예교수



원용선 (59영문)
남양이엔씨 회장



윤형두 (55법학)
법우사 회장



이민휘 (52정치)
Train Works 회장



이상현 (54경제)
상경물산 회장



인종식 (53경제)
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은구 (64경제)
동양에스텍 대표이사



조석영 (59경영)
모교 명예교수



최상철 (64경영)
파인글로벌 대표이사



현해스님 (64불교)
월정사 회주



홍영춘 (61불교)
前 SK에너지 CEO



감사
100만원



김수창 (65불교)
前 육군대학 교수



부회장
100만원



공영대 (78화학)
모교 화학과 교수



김종응 (65경영)
우성에이디엠 대표이사



김정남 (72행정)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진익 (73경영)
우진INS 상임감사



김환배 (68연료공학)
풍년 회장



나경미 (70정외)
제일테크노스 명예회장



마가스님 (14경대원)
현성정사 주지



박공서 (88행대원)
한영씨앤텍 대표이사



박상범 (74경영)
모교 경영학과 교수



박영순 (92산대원)
前 보령제약



박용기 (83한의)
모교 한의과대학 교수



성우스님 (77승가)
금산사 주지



성해스님 (88교대원)
삼각사 주지



오정석 (72농학)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위재춘 (64경영)
여성종합나무 대표



유병완 (64상학)
사업



윤종기 (79경행)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두환 (75경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교수



이희경 (68경행)
前 강원지방경찰청장



정천웅 (63국문)
북미주총동창회

동국발전의 큰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회비는 1년에 한번 …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총동창회비는 회원간 우의증진, 후배 장학금, 동창회보 발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지혜 · 자비 · 정진이 있고, 셋이 걷는 길에는 따뜻한 동국인의 우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걷는 길에는 동국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 임원회비 및 동창회비

-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년회비 3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 납부방법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송금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우리은행 1005-302-718184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이희구 (69국문) 정우식 (88철학) 최명희 (14행대원) 허봉주 (87경대원) 홍선기 (69정외) 홍준기 (91무역) 황석홍 (75공업경영) 홍진수 (98경대원)	조원상 (74전자공학) 최병곤 (84경대원) 최우수 (77경제) 추교춘 (02사대원) 하한기 (77건축) 황석홍 (75공업경영) 홍진수 (98경대원)	김인범 (85법학) 김인자 (88불교) 김일근 (05경대원) 김재완 (92인철) 김정길 (62농경) 김종배 (82수교) 김종선 (78공업경영) 김종위 (89경제) 김종호 (61대학원)	불암사 삼성사 서광익 (85전기공학) 서문진 (97정보통신) 서봉철 (87법학) 서윤하 (82법학) 성불사 성불사 성원식 (83법학)	이건선 (65임학) 이경배 (79전산) 이경진 (09식품산업) 이근우 (61불교) 이기우 (89경제) 이대수 (92행대원) 이득순 (05경영) 이범주 (78식공) 이상윤 (71건축)	조일권 (55법학) 조준수 (87경대원) 조천사 조통달 (94문대원) 조현진 (03행정) 조호철 (89연대원) 주용민 (75경영) 주정호 (92회계) 지응종 (76건축)				
지도위원 30만원	강병국 (64농경) 김관수 (63행정) 김일환 (64경제) 류정우 (58법학) 박영길 (62법학) 방조원 (77행대원) 양규철 (64농학) 유영수 (62행정) 이순우 (60경제) 이제곤 (64경제) 이주삼 (59정치) 정대진 (59법학) 정동귀 (57정치) 정인악 (55화학) 최규철 (60정치) 최덕현 (59생물) 홍성숙 (61불교)	강희석 (97호텔경영) 권연옥 (72행대원) 김규태 (46영문) 김기수 (69국문) 김명길 (70공업경영) 김명희 (85미술) 김미현 (13행대원) 김숙희 (67물리) 김영석 (87법학) 김인종 (77회계) 김정곤 (95법학) 나채문 (99산대원) 노유성 (81사회) 박대은 (97사대원) 박상문 (64국문) 박영호 (64경행) 배보영 (97불대원) 백대운 (70전자공학)	강완희 (07경제) 김희배 (81공업경영) 이민웅 (60생물) 정우스님 (98선학)	김진엽 (72토목) 김철완 (88법학) 김철우 (93불교) 김충석 (59상학) 김한성 (85한의) 김해동 (91연대원) 김홍부 (63상학) 김환규 (60정치) 고경수 (03경대원) 고상영 (85전산) 김홍문 (95법학) 김희자 (89미술) 고재선 (78행정) 고태복 (69식공) 권순일 (62국문) 권순재 (84불교) 권태범 (70수교) 권태상 (77국교) 금산사 김강수 (77전산) 김근배 (86식공) 묘광사 김낙현 (82체교) 백용운 (86수교) 서동부 (92사대원)	김효수 (83경제) 김효주 (83경제) 김희자 (89미술) 김재선 (78행정) 김태복 (69식공) 권순일 (62국문) 권순재 (84불교) 권태범 (70수교) 권태상 (77국교) 노만사 류우열 (74회계) 김대홍 (94불대원) 김동식 (84법학) 손근익 (77건축) 신남선 (84법학) 안병국 (71건축) 안재근 (77경제) 오근옥 (72회계) 오택원 (73국문) 유병돈 (73공업경영) 이병노 (86경행) 박상래 (78통계) 이영숙 (69사교)	김상경 (84행정) 김영진 (62화학) 남균우 (58법학) 남기호 (81화학) 남윤지 (80사회) 남해포교당 노만사 류우열 (74회계) 김상식 (79도시행정) 김상호 (81행대원) 김석동 (68경영) 김수열 (82화공) 김시현 (60임학) 김양태 (85무역) 김영삼 (89산공) 김영석 (75농경) 김용모 (57경제) 김용성 (93교육) 김용운 (95문대원) 김원식 (81행정) 김윤숙 (75무역) 김윤희 (89행대원) 김의상 (61번화)	김현자 (84행정) 신영진 (62화학) 남균우 (58법학) 남기호 (81화학) 남윤지 (80사회) 남해포교당 노만사 류우열 (74회계) 김상식 (79도시행정) 김상호 (81행대원) 김석동 (68경영) 김수열 (82화공) 김시현 (60임학) 김양태 (85무역) 김영삼 (89산공) 김영석 (75농경) 김용모 (57경제) 김용성 (93교육) 김용운 (95문대원) 김원식 (81행정) 김윤숙 (75무역) 김윤희 (89행대원) 김의상 (61번화)	5	이종규 (81경영) 이종혁 (69경제) 이준 (56생물) 이창진 (02불교) 이춘우 (78농학) 이행구 (72승가) 임각균 (82공업경영) 임광빈 (93경제) 임애란 (82가교) 임재천 (74영문) 임현준 (81불교) 장경사 장병수 (10대학원) 장보선 (87교대원) 장석조 (57법학) 장한림 (97국문) 장해수 (76경영) 전법사 전상윤 (89회계) 전윤호 (75건축) 정규수 (81건축) 정대연 (64연영) 정송이 (05경제) 정용일 (70법학) 정인호 (82농생) 정재균 (87법학) 정창현 (66경영) 정준덕 (55법학) 정종래 (78국교) 정태수 (72행대원)	조지사 조관사 진흥사 진희언 (06식공) 차관준 (88통계) 천선우 (79농경) 최경봉 (57물리) 최경수 (92회계) 최병만 (83행대원) 최봉석 (92정외) 최수용 (85전산) 최승구 (61법학) 최태영 (93행대원) 하미정 (85국교) 하승훈 (79토목) 한성일 (94법학) 한진석 (72전자공학) 한진수 (86미술) 한충희 (92컴공) 현진스님 (83선학) 홍면유 (68자동제어) 화엄사 황규철 (80회계) 황윤철 (95정보산업)
상임이사 20만원	강기영 (74토목) 고천석 (76정외) 김경자 (81영문) 김래동 (80행대원) 김문겸 (64농경) 김창기 (95경대원) 김춘추 (74영문) 김현삼 (81영문) 박상래 (78통계) 방재홍 (79경대원) 서대성 (83경영) 손일환 (93사대원) 안창웅 (63식공) 유건민 (84통계) 유경희 (71미술) 윤두옥 (59생물) 이기영 (78경제) 이영안 (65경영) 이창수 (80회계) 이총파 (90분대원)	30	김동식 (84법학) 손근익 (77건축) 신남선 (84법학) 안병국 (71건축) 안재근 (77경제) 오근옥 (72회계) 오택원 (73국문) 유병돈 (73공업경영) 이병노 (86경행) 박상래 (78통계) 이영숙 (69사교) 이용석 (73정외) 이윤영 (71토목) 이의송 (84경영) 이장화 (84무역) 이철종 (77토목) 이준섭 (78체교) 임귀수 (84농생) 임수현 (86사회) 전길영 (46경제) 전신섭 (89경대원) 정우경 (95분대원)	김득규 (59사학) 김명석 (85정외) 김봉수 (64통계) 김상규 (98국대원) 김상문 (81법학) 김상식 (79도시행정) 김상호 (81행대원) 김석동 (68경영) 김수열 (82화공) 김시현 (60임학) 김양태 (85무역) 김영삼 (89산공) 김영석 (75농경) 김용모 (57경제) 김용성 (93교육) 김용운 (95문대원) 김원식 (81행정) 김윤숙 (75무역) 김윤희 (89행대원) 김의상 (61번화)	박기태 (15대학원) 박병은 (86영문) 박상훈 (90경제) 박성조 (95회계) 박성진 (65법학) 박수원 (72국교) 박윤규 (84경대원) 박재원 (57경제) 박진숙 (72가교) 박학률 (84경대원) 박해춘 (59경제) 박희찬 (97건축) 반룡사 배경구 (81경영) 백기완 (64정외) 백길웅 (85인철) 백운성 (97행대원)	영월암 영탑사 박병은 (86영문) 박상훈 (90경제) 박성조 (95회계) 박성진 (65법학) 박수원 (72국교) 박윤규 (84경대원) 박재원 (57경제) 박진숙 (72가교) 박학률 (84경대원) 박해춘 (59경제) 박희찬 (97건축) 반룡사 배경구 (81경영) 백기완 (64정외) 백길웅 (85인철) 백운성 (97행대원)	영월암 영탑사 박병은 (86영문) 박상훈 (90경제) 박성조 (95회계) 박성진 (65법학) 박수원 (72국교) 박윤규 (84경대원) 박재원 (57경제) 박진숙 (72가교) 박학률 (84경대원) 박해춘 (59경제) 박희찬 (97건축) 반룡사 배경구 (81경영) 백기완 (64정외) 백길웅 (85인철) 백운성 (97행대원)	5	김종필 (82행정) 누계 : 132만 동명사 누계 : 132만 정엄스님 황수경 (00대학원)	발전기금
동국장학회	이성훈(97정보) 누계 : 28만 이진혁(75화학) 누계 : 350만	10	이건선 (65임학) 이경배 (79전산) 이경진 (09식품산업) 이근우 (61불교) 이기우 (89경제) 이대수 (92행대원) 이득순 (05경영) 이범주 (78식공) 이상윤 (71건축) 이여진 (69화학) 이영찬 (72농학) 이옥동 (82영문) 이용구 (71농학) 이용성 (73법학) 이운길 (76경행) 이재원 (58법학) 이정철 (05경행) 이종규 (81경영) 이종혁 (69경제) 이준 (56생물) 이창진 (02불교) 이춘우 (78농학) 이행구 (72승가) 임각균 (82공업경영) 임광빈 (93경제) 임애란 (82가교) 임재천 (74영문) 임현준 (81불교) 장경사 장병수 (10대학원) 장보선 (87교대원) 장석조 (57법학) 장한림 (97국문) 장해수 (76경영) 전법사 전상윤 (89회계) 전윤호 (75건축) 정규수 (81건축) 정대연 (64연영) 정송이 (05경제) 정용일 (70법학) 정인호 (82농생) 정재균 (87법학) 정창현 (66경영) 정준덕 (55법학) 정종래 (78국교) 정태수 (72행대원)	조일권 (55법학) 조준수 (87경대원) 조천사 조통달 (94문대원) 조현진 (03행정) 조호철 (89연대원) 주용민 (75경영) 주정호 (92회계) 지응종 (76건축)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



옐로카펫이 보이면, 차보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약속 – ‘옐로카펫’
DB손해보험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면 약속하세요!



‘옐로카펫’이란?
교통사고 피해가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설치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DB손해보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 앞이나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옐로카펫’을 후원합니다.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